

## 학생상담센터 이용실태 점검

# 전문상담 위해 인력충원해야

### 상담원 한명이 전담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상담 필요

대학은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인 동시에 또 하나의 작은 사회이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삶의 조언자도 돼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 역시도 신경 써 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 복지시설의 실태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 볼 계획이다.

편집자

① 학생상담센터

② 여학생실·보건소

‘교육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 증대와 교육환경개선이 필수적이지만 이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예전에는 주로 교수와 선택이 제자 또는 후배의 진로에 대해 상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점차 학내 전문상담기구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교 학생상담기구의 이용실태는 어떨까. 현재 본교에는 학생상담센터(소장=권중희·지리교육)가 설립돼 학생들의 △성격, 진로, 지능 등에 대한 검사 △개인상담 △취업대비직무적성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일년에 1천 5백여명의 학생이 이용할 만큼 호응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처럼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음에도 현재 전문상담원이 한명에 불과해 상담 외에도 프로그램 기획, 예·결산 등 업무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특히 상담분야는 △학업지도 △

유학 △진로 등 다양하지만 전문상담원이 부족하다보니 분야별 깊이가 있는 상담을 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노지희(신방2) 양은 “지난해에 검사를 받고 상담일을 한번 놓쳤는데 그 이후로 상담연락이 오지 않았다”며 “이후 몇차례 찾아가도 다른 학생들과의 상담약속으로 만나기 어려웠다”고 말해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타대학 상담센터를 살펴보면 △서강대=전문상담가 4명, 시간제상담원 5명, 레지던트상담원 4명, 인턴상담원 6명 △연세대=전문상담가 10명 △이화여대=전문상담가 4명 △한양대=전문상담가 7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오프라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의 이용도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홈페이지 상으로 상

담일정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간단한 자가진단표가 마련돼 있어 학생들의 상담센터 이용이 수월하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 학생생활상담연구소의 홍정무씨는 “인터넷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이버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강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원생과 교직원 그리고 동문, 일반인 등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다. 서강대 상담센터의 한 관계자는 “일반학생 외에도 교직원, 동문들도 대인관계, 집안문제,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하는 편”이라며 말했다.

또한 외부 조·중·고등학교에 집단상담을 하는 등 외부사업도 펼치고 있어 학교홍보역할 그리고 수익사업에도 좋은 축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사 경고자들을 모아 놓고 학업에 대한 관심과 사전지도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는 학교도 있어 눈길을 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대학의 경우 학교홍보와 수익사업으로 가치가 높은 상담업무를 중요시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본교 역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구축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비전을 명확히 세울 수 있도록 상담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2005학년도 교과과정 개편

## 취업·고전관련 과목 개설

## 이과대, 학과필수교과목 신설

교육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생들의 기본소양 강화를 위한 2005학년도 전공·교양 교과목 개편이 확정됐다.

이는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목이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명칭변경 △개설학년·학기가 조정된 것으로 2005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자유선택 영역에는 △취업관련 교과목=‘취업실전특강’,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이 신설됐다. ‘취업실전특강’은 4학년 과목으로 매회 초빙된 외부강사가 진행하며 ‘진로설정과 경력개발’은 1,3학년 과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장 부양근씨가 담당강사이다.

이와 관련해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취업관련 교과목은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했으며 이번학기에 신설된 ‘경력개발과 취업전략’ 강좌는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고 말했다.

### 교필 이수학점 상향 조정

이러 교양교과목을 살펴보면,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교양필수 학점이 기존 10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났다.

또한 공과대 교양필수학점 역시 기존 6학점에서 10학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교양필수과목으로서의 필요성이 감소한 ‘컴퓨터 활용과 실습’이 6영역으로 이동하는 대신 ‘고전의 이해 1,2’가 각 2학점으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운영실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생이라면 꼭 함양해야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전의 이해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한편 05학번 이전의 학생들은 다음학기부터 교양필수 학점이 늘어

<표>

구분	현행	조정(안)	비고
교양최대 이수학점	47학점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37학점 이하)	47학점 (교양필수 12학점, 교양선택 35학점 이하)	공대(건축학 전공 제외), 정보산업대 제외
교양선택 제6영역 최대이수학점	19학점 (교양필수 6학점, 교양선택 13학점 이하)	20학점 (교양필수 10학점, 교양선택 10학점 이하)	공대(건축학 전공 제외), 정보산업대
	10학점 (5개과목)	8학점 (4개과목)	

나는 것과 상관없이 ‘불교와 인연’, ‘자아와 명상 1,2’는 반드시 이수하고 예전 교양필수과목과 신설된 교양필수과목을 합하여 10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또한 교양 최대이수 학점과 교양선택 제6영역 최대이수 학점도 조정됐다. 공대(건축학 전공 제외), 정보산업대의 교양최대이수학점은 총 19학점에서 20학점으로 늘어났고, 교양필수 학점이 10학점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양선택이 10학점 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공대(건축학 전공 제외)와 정보산업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의 교양최대 이수학점은 47학점으로 변화가 없으나 교양필수가 10학점에서 12학점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교양선택이 37학점 이하에서 35

학점이하로 감소했다. 또한 제6영역 최대 이수학점이 5개 과목 10학점에서 4개 과목 8학점으로 축소됐다.

한편 이과대는 교양교육과정을 변경했는데 대학지정 공통과목을 폐지하고 학과필수교과목으로 4학점씩(주당 이론3시간+실습2시간) 5과목을 신설하고 취득학점은 총 8학점을 지정했다. 학과필수교과목이란 교필학점과는 별도로 이과대학생이라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05학번 신입생들이 자연계 기초과목의 수준별 차이가 있음에 따라 향후 원활한 전공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과필수 교과목을 지정한 것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 직원인사발령

### 신규직원 8명 임용 등

본교가 직원인사를 지난 11월 초에 단행했다.

전보인사는 △법인사무처 기획과장 겸직=김규환 △법인사무처 총무부=이재우 △기획인사처 기획심사팀=변승재 △기획인사처 인사관리팀=차승현 △건학100주년기념사업회 기념사업팀=서정옥 △교무처 학사지원실=변재택 △연구처 연구개발팀=김종주 △연구처 연구지원팀=양성우 △학생처 학생복지실=김해덕 △총무처 시설관리팀=장인준 △총무처 재무회계팀=임지환 △총무처 구매팀=최성진 △대학원 교학부 교학과=김성우 △영상정보통신대학원 교학부=권혁자 △정보산업대학 교학과=박래호 △아간강좌교학처 교학과=안상호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임종민 (11월 8일자)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 관리팀=최준혁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정왕근(11월 1일자)이다.

이번 인사에는 지난 1일 채용된 신규 직원 8명도 포함됐다.



이리路 ... 민해광장에서 사제 동행비를 거쳐 학림관으로 향하는 '산책로'가 조성됐다. 이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을 지난 주 공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황주상 기자 hjs0228@dongguk.edu

# 전공신청 22일부터 5일간 4지망까지 지원 가능

2005학년도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전공결정 신청대상은 1학년 2학기 재학생과 1학년 2학기과정을 수료한 2005학년도 1학기 복학생이며 지난해까지 불교대와 사과대 등 일부 단과대의 경우 1.2차로 나눠 진행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전 단과대 전공신청이 한 번으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교양교육운영실의 한 관계자는 “학사행정을 간소화하고 학생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번으로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원하는 전공은 총 4지망까지 지원가능하며 제1지망 전공에서 탈락했을 경우 차순위 지망 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전공배정 기준은 1·2학기 누계 평점평균이며, 제1지망 탈락 후 차순위 지망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전공 제1지망 지원자가 평점평균이 낮더라도 우선 배정된다.

한편 복수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재학생은 전공결정 시기와 동일하며 2005학년도 1학기 복학생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원을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해당 복수전공 교과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공배정 결과는 내년 1월 21일, 복수전공은 내년 2월 11일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발전기금 060-700-0119

# 대학생활에 빠지는 아주 특별한 법칙

###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원서접수 : 11월 25일까지  
전형일시 :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응시자격 : 1학년 재학생  
원서교부 및 문의 : V동 1층 동대신문사 2260-3491~2

기계공학과 박문규 교수 인터뷰

# “연구인력 확충이 중요하다”

## 대학원 지원 통해 우수연구인력 확보시급



인력으로 인해,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나 외부 업체 등의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이유로 점차 교수들 사이에서는 학내에서 하는 연구는 오히려 안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연구 인력이 부족한 원인과 해결책이 있다면.  
= 공과대의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은 대부분 대학원생들이 맡고 있는데 현재 기계공학과와 경우만 보아도 전체 7명의 교수 중 4명의 교수가 대학원생이 할당돼 있지 않다. 이는 우리학교 공대 계열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대학의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 대학의 대학원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재들을 대학원에 유치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건국대의 경우 교수가 자신의 연구를 함께 하는 학생의 대학원 등록금의 반액을 지원하면, 나머지 반액은 학교 측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등록금

을 면제시켜주고 기숙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대학원생들을 학교의 수입원으로 하는 중요한 인력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생들과 대학원들을 연계시켜주는 '실험실 인턴쉽' 제도 등의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이외에도 연구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안.  
= 현재 이공계열의 경우 교수 책임 시간은 9시간이다. 대부분의 타 대학들이 6시간인데 비해 우리학교 교수들은 수업부담이 큰 것이다.

또한 공대의 경우는 공학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과목들의 준비까지 이점으로 겹쳐지고 있다. 이는 곧 교수들의 개인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교수 책임 시간을 줄이고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들에게는 형식적이나마 학내 신문을 통한 연구 업적에 대한 보도나 감사패 등을 전달하는 방법도 교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우리학교 교수들의 연구 업적 저조가 학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교수들의 노력 부족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일부의 반응이다.

실제로 공과대 기계공학과 박문규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평가제도의 개선 외에도 연구 인력의 확충, 교수 책임 시간의 재고 등 교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12일 박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교수연구 부분에서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 현재 우리학교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기에 부족한 공간과

### 흥기삼 총장 중국 방문 학술교류협정 체결 위해

흥기삼 총장은 지난 11일부터 7일간의 중국 방문기간 동안 △북경 어언대학△상해교통대학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절강대학교와 자매교류대학 협정을 갱신할 예정이다.

또한 난치병과 관련한 의료가이 발달한 협화외과대학과 의정서를 체결해 일산병원과 협화외과대학간의 교수, 연구원, 학생 교류를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성적우수장학 신청 오는 30일까지 학과별 수석 장학은 성적 순 자동 선정

2005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 신청이 오늘(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체 등록금의 30%가 감면되는 우수장학은 학내·외에서 타 장학금을 수혜하는 학생을 제외한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서 △사회봉사 인증서 △과

제 증명서 등을 학업지도 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학금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50점 △가정형편=20점 △학업지도교수평가=20점 △사회봉사=10점이며, 각 단과대·학과별 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 국보법 폐지 위한 소문화제 진행

### 일일 단식운동, 촛불시위 계획 학과·학회 동감 유도

총학생회 비대위(비대위장=김제동·불교4)에서 진행하는 국가보안법 소문화제가 지난 11일 동국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번 문화제는 “색깔론 운운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를 외치며 촛불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배자 학생의 발언 △국보법철폐를 위한 단식농성자 발언 △국보법관련 선전 등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 신용화(생명자원산업유통4)군은 “지난 9월부터 관련 유인물을 배포했지만 여론 형성이 되지 않아 문화제로 기획했다”며 “주 1회 소문화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관 앞에서 감옥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

한편 단식농성은 문화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유영빈(경영4·수배 3년차)군과 이동철(독문4·동연장)군이 8일째 단식 중이다. 단식 농성은 학기 중강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과, 학회, 소모임 등을 대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1일 단식”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제를 진행하는 한 관계자는 “이번달 말부터 학생회관 앞으로 단식농성장을 옮길 것”이며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중앙도서관 앞에서 촛불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성장

주변에 작은 조형물 등을 설치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 고구려유적지 답사 참가자 모집

### 참가비 무료 ... 18일까지 생협에 신청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협)이 오늘(15일)부터 18일까지 고구려유적지를 답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답사는 다음달 13일부터 5일간 중국 단둥과 심양 부근의 고구려 유적지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인원은 총 8명이다. △교수 △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생협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생협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서를 내려받아 해화관 1층 생협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는 생협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오는 25일 오후 5시까지 생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협의 김용문 팀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며 지원자가 많으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3개 단과대 학생회장 선출

### 경영대·사범대 선거 각각 16일, 23일부터 3일간

지난 9일부터 3일동안 진행된 단과대 선거 결과 3개 단과대 모두 학생회가 건설됐다.

△불교대  
총 투표인원=179명(71.88%) 찬성=135명(75.41%) 반대=16명(8.93%) 무효=28명(15.64%)  
당선자 정학생회장: 김승태(불교2) 부학생회장: 김인영(불교3) △이과대  
총 투표 인원:503명(59.5%) 찬성=452명(89.9%) 반대=47명(9.3%) 무효=4명(0.8%)  
당선자 정학생회장: 정형주(통계2) 부학생회장: 이승민(수2) △정보산업대  
총 투표인원: 584명(51.14%) 찬성: 461명(78.94%) 반대: 32명(5.48%) 무효: 91명(15.58%)  
당선자 정학생회장: 박혜영(컴공3) 부학생회장: 백선혜(컴공3)  
한편 경영대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동국관 1동 2층에서 선거를 진행한다.

**패스제시험·모의토익 접수 19일까지 언어연구교육원**  
언어연구교육원(원장=봉일원·독일학)은 오는 19일까지 패스제 토익시험 및 모의토익 시험 접수를 받는다.

시험은 오는 20일 해화관 1층과 2층 강의실에서 치러지며 시험자는 10시 2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접수비는 5천원이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 김영수 과장은 “이번 해 두 번 남은 시험인 만큼 영어패스제 졸업요건 대상자들은 꼭 응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전무대

### 깜빡 설명회

○...정산대 04학년 학부 학생들은 미운오리새끼라는데.

알아보니, 정산대 학부가 내년부터 과체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이번에 04학년 학생들이 전공결정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전공설명회를 준비하지 않기로 했다고.

04학번들은 이번에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만큼 전공설명회는 개최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왠, “과도기에 있는 04학년 전공결정, 알아서 해라(!)”

### 초과 공급 그리고 갈등

○...도서관 프린터는 초과수요와 초과공급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데.

이유인즉 중앙도서관 2층에 마련된 프린터 중 인터넷 문서 전용 프린터는 학생들의 사용이 적지만 일반 프린터는 사용하려는 학생이 많아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해 프린터를 재배치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왠, “프린터는 다 같은 프린터, 걸모습만 만족시키기(!)”

### 아쉬운 집회

○...지난 주말 대운동장에서 쓰레기 투하사건이 일어났는데.

알아보니 지난 주말 노동자 대회 전야제가 우리학교에서 진행된 이후 이에 대한 뒤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받던 것이라고.

집회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남을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왠 “어지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은 공존할 수 없다(!)”

### 배려없는 공사

○...동국관 수업시간에는 불청객이 나타나 수업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데.

알아보니, 수업중에도 근처 강의실에서 공사가 진행돼 소음으로 수업을 계속하기 힘들었던 것이라고.

강의시간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왠, “바로 옆 강의실에서 들려오는 음악, 정제는 드릴 소리 (!)”

##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1/15)	소고기무국 (18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김치볶음밥 (1800)	부대찌개 (1800) 오징어볶음 (2000) 간짜개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국밥 (3500) 제육콩나물볶음 (3500)
화 (11/16)	닭가슴살 (1800) 돈장조림 (2000) 스파게티&모닝빵 (1800)	순만두국 (2000) 참치김치볶음밥 (1800) 제육비빔밥 (2000)	된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닭조림 (3500)
수 (11/17)	참치김치찌개 (1800) 버섯불고기 (2000) 돈육당갈탕 (2000)	양지탕 (1800) 탕수육 (2000) 겉비경단 (1800)	된장찌개 (3200) 김치불고기수육 (3500) 해물달걀 (3800)
목 (11/18)	설렁탕 (1800) 치킨볶음밥 (1800) 비빔밥 (18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치킨카레라이스 (1800) 유부초밥+어묵우동 (2200)	된장찌개 (3200) 수제돈가스 (3500) 이면수국이 (3500)
금 (11/19)	사골우거지탕 (1800) 오징어불고기 (2000) 공중떡볶이 (2000)	쇠고기미역국백반 (1800) 새우가스 (1800) 오징어소면우침 (2000)	된장찌개 (3200) 동태찌개 (3500) 떡갈비찜 (3800)

### 금주의 추천메뉴

사골우거지탕 (동국관 금요일 조식)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우거지국은 텅텅하면서도 시원해 속을 푸는 데도 한 몫을 한다. 우리 입맛에 딱 맞아서 먹는 사람도 부담이 없다.

사골과 잡뼈를 고아서 만든 사골 물에 우거지, 된장을 넣어 끓인것이 사골우거지국이다. 된장은 간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 동악게시판

### 전자공학과 전자전시회

11월 22일~24일  
원흥관 F313, 306  
밀리미터파 신기술연구센터

### 동국대 중앙 락 동아리

Fearless dawn  
11월 16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 영화공동체 디딤돌 가을제 영화제

11월 17일~19일  
학림관 소강당

### Caps Software Exhibition

11월 18일~20일  
오전 9시~오후 6시  
정보문화관 ESC4

### With mecha in 2004 제9회 기계전

11월 22일~23일  
원흥관 1층 공용공작실  
동국대 기계공학과

### 평등자문위원회 대학생이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새로운 접근 학술발표토론회

11월 19일  
오후 3시~오후 6시  
90주년 기념문화관 덕담세미나실



### (주)아이테스트

모집부문: 회계/세무, 기술영업(국내 및 해외), Memory기술  
응시자격: 외국어 능통자 우대  
제출기한: 11월 21일  
문의: sb.lee@itestsem.com

### (주)제너시스시스템즈

모집부문: 연구개발, 시스템 엔지니어  
응시자격: 경력 - 개발경력 6년차 이내 / 신입 - 전산학(컴퓨터 공학) 및 전자공학 전공자 우대  
제출기한: 11월 30일  
문의: 02)3438-5086

### (주)한독약품

모집 부문: Finance Department  
Controller(신입) 후보자  
응시자격: 경영학, 상경계열  
제출기한: 11월 19일  
문의: 02)527-5257

### J.H.LEE and CO.LTD

모집부문: 일어난 영업부문  
응시자격: 일어의 독해, 작문, 회화 능숙자

제출기한: 11월 26일  
문의: 031)455-5971

### 디와이(주)

모집부문: 사무관리직  
응시자격: 이공계열  
제출기한: 11월 30일  
문의: 031)491-8577

### MBC 홍보심의국 홍보부

하는일: mbc 가이드 워드  
입력 작업(택티노시 사용 가능자)  
일급: 5만원  
모집기한: 11월 15일  
문의: 02)789-2727

### 국민은행

하는일: 문서편집 작업  
워드, 엑셀 능통자  
시급: 5천원  
모집기한: 11월 17일  
문의: 02)754-5944

### 티에프컨설팅

하는일: 연회장 서비스  
시급: 3천 5백원~4천 5백원  
문의: 010-9903-0308

## 이주의 본고역사

### 1989년 한국불교전서 완간

본교 출판부는 '한국불교전서 전 10권 완간 기념회'를 지난 89년 11월 14일 오후 6시 하얏트호텔(2층 포스트룸)에서 열었다.

신라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자료를 총망라한 이번 불교전서 총10권은 출판기간이 무려 17년이나 걸려 완성한 심도깊은 불교관계 전문서적이다.

한국불교 전서는 제1권부터 제10권까지 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구분해 시대별로 주제를 선정 완간한 것으로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다.

### 1992년 고속전철 저지운동 고조

지난 92년 11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측의 경주권노선안(비교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표면화된 가운데 범동국차원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됐다. 경주고속전철 경주캠퍼스 통과저지 종합대책위원회(위원장=민병천 총장)는 지난 92년 11월 19일 종합대책본부회의를 긴급히 열고 향후 지속적인 대응방안 수립을 강구했다.

이 날 회의를 통해 학교는 경주캠퍼를 인접해 통과하는 공단측의 비교노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고속철이 경주캠퍼를 인접해 통과할 경우 △교육 차질 △경주부속병원 시설 파괴 △건물 균열 및 미관 훼손 등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원서 제출과 면담요구 △경주시장, 경주시의회에 항의문 전달하기로 했다.

학생자치기구 점검 ① 총대의원회 · 학생복지위원회 사업 평가

총대, 인원부족 사업진행 어려움 학복위, 식대인상 관련 의견수렴 부족

대학에서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학생자치 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는 것이다.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총학생회 입법감시 기구로 학생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학생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총대가 하는 일로는 △학생회 선거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감사 △학생회비 분배와 인출에 대한 승인 △총학생회칙 개정 등이 있다.

들에게 운동권적 성향으로 인식됐다고 판단.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없었다.

우선 시험기간을 맞아 학생들에게 '비타민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총대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원이 적다는 것이다. '새터 부정기 감사'에서는 이를 감시하는데도 힘들었다. 여러 단위가 발전해 위반사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데다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도 없었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일부 단과대의 자체 감사에서 해당 단위 소속 대의원이 감사를 했지만 이번부터 다른 단위 소속 대의원 2명이 감사

를 진행해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았다는 평가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총학생회의 산하 기구로서 학생들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복위는 학생회비와 비영리 조직인 생활협동조합의 이익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은 △귀향버스 △어학특강 △블룸퍼대 등을 하고 있다.

올해 학복위 사업을 살펴보자. 우선, 지난 학기 식대 인상 시 적절한 대응이 부족했다. 학생들은 음식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식대에 관심이 높았지만 식단 모니터링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덕수(역교4) 학복위원장은 "예년에는 학생들과 직

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올해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우산대여 사업의 경우 취지는 좋았으나 수거대책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여 신원확인고 더불어 신분증류 등 제도로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사업의 경우 한자특강과 한방특강 등은 접수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매진되는 좋은 성과를 보여 다음 학기에는 이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복위는 학생들의 다양한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생활 산하의 '생활학생위원회'(가칭)로 전환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행정대학원 학칙개정

지방자치학과 폐지 · 조기수료제 신설

행정대학원 학칙이 신입생 유치와 편입생 확보를 위해 학생들 위주의 학사행정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학과 폐지 △편입자격 완화 △조기 수료제 시행 △학위취득시험제 도입이다.

먼저 그동안 계속해서 학생수가 미달된 지방자치학과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편입자격 제한으로 인해 편입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계열 전공자여야 한다'는 자격 조항을 없앴다.

또한 소정의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전공과목 취득 평균 평점이 4.3이상인 자는 2년(4학기)만에 조기 수료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다.

내 행정대학원 중 우리학교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위취득시험제는 학위 취득 방법으로 기존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하여 합격하는 것 외에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중앙도서관의 납본용 석·박사 학위논문 납본수량 축소 요구에 따라 납본수량을 15부에서 8부로 축소키로 하는 내용이 학사내규 개정에 포함됐다.

'대동민국 모의국회'

중강당에서 17일

제16회 대동민국 모의국회가 오는 17일 오후 5시 30분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모의국회는 '과거사 진상 규명법 - 잊혀진 과거... 묻혀버린 슬픔...'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58대 정의과학생회(회장=차경윤·정의4)와 16대 모의국회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이날 행사는 △1막=과거사 사건 논란 재현 △2막=법안제작과정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홍용구(정의4) 준비위원장은 "현재 국가보안법개폐 논란으로 가려진 듯한 과거사진상 규명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어문학회 19일 발표회

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제14차 한국불교어문학회 학술발표회 '사찰공간과 문학적 형상화'가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불교문학의 환상성과 사찰연기 설화 사찰의 연행공간적 성격과 그림연행-안락국대자 변상도를 중심으로 사찰공간의 문학적 이해 순서로 진행되며 발표자는 오대현(동국대), 김진영(충남대), 강석금(경주대), 조춘호(대구한의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불교어문학회장 김승호(국어교육)는 "불교신앙의 중심축으로서 사찰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차수련 교수 지난 8일 별세

차수련(경영학)교수가 지난 8일 오후 4시경 지병으로 5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영결식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동국관 앞에서 치러졌다. 차수련 교수는 경영대 학장을 역임했고 92년도에는 동대신문사 주간교수로 재직했다.

미술학과 과제전

22일부터 동국갤러리에서

예술대 미술학부 과제전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문화관 동국갤러리에서 열린다. 미술학부 1~3학년 학생 15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과제전에서는 △사양화 △한국화 △불교 미술 △조소와 순서로 각 전공별 작품이 5일씩 전시될 예정이다.

연극학과 졸업공연

24일부터 예술극장에서

연극학과 졸업공연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작품은 러시아 작가 안톤체호프의 4대장극 중 하나인 '갈매기'이다.

생협, 도서할인판매

오늘부터 26일까지

생협이 다량관 서점 소장도서와 KG북플러스 제휴도서를 특별할인 판매한다.

할인판매는 다량관 구내서점과 상록원 입구에서 오늘(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KG북플러스(상록원 입구)=외국서적, 한겨레신문, 권장도서이며 30%~80% 할인되며 사은품증정을 한다. 또한 △다량관=소설, 비소설 등 총 555권이 5백원~1천원이 할인된다.

한국창작희곡워크숍

정순열 '천상의 노래' 발표

한국창작희곡워크숍(대표=김홍우·연극학)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혜화동 열린극장에서 진행된다.

매달 셋째주 일요일마다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희곡작가 정순열 씨의 '천상의 노래'라는 작품이 발표되며 희곡을 쓰는 데 관심이 있거나 방송 작가 등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회비는 1만원.



"결의!" ...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우리학교에서 1만여 명 규모의 노동자 대회 전야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비정규직 법안 철폐 △한·일 FTA반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했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수강과목 사전조사 실시

내달 13일 부터 강좌·강사 준비 위해

200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이 오는 2월 14일부터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1학기 수강신청 기간이 12월 초순경에 5일간 실시됐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이번 학기부터 두

달 늦춰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사지원실에서는 학생들의 신청할 강좌 수나 강사 선정 등을 미리 조절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 수강과목 사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강과목 사전조사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이다.

봉불식,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대각전

제8차 봉불식이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대각전에서 열린다.

이는 본교의 발전과 불교병원의 성공적인 회향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서 발전기금을 보낸 기부자들을 초청하는 자리이다. 오전 10:30부터 13:00까지 봉불식이 진행되며, 이어서 점심공양이 있다.

2005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모집

동국대학교 대학원은 한시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일반대학원 [주간]
• 모집학과: 석·박사학위과정 전계열 전학과
• 원서접수: 2004.11.4(목)~11.11(목)
• 전형일: 2004.11.10(수)~11.12(금)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gs
대학원 교학부 02)2260-3094~5

불교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불교학과, 불교사학과, 불교사회복지학과, 정례문화학과
• 원서접수: 2004.11.15(월)~11.25(목)
• 전형일: 2004.11.24(수)~11.25(목)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bs
불교대학원 교학부 02)2260-3097~8

행정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행정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부동산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 원서접수: 2004.11.1(월)~11.16(화)
• 전형일: 2004.11.20(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pa
행정대학원 교학부 02)2260-3101~3

경영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경영정보학과, 부동산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 원서접수: 2004.11.18(목)~11.25(목)
• 전형일: 2004.11.27(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ba
경영대학원 교학부 02)2260-3106~7

교육대학원 [야간]
• 모집전공: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연구, 교육철학,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통계, 교육법학,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공학, 교육공학, 교육공학, 교육공학
• 원서접수: 2004.11.15(월)~11.19(금)
• 전형일: 2004.12. 4(토)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edu
교육대학원 교학부 02)2260-3110~1

언론정보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출판편집학과, 정보관리학과
• 원서접수: 2004.11. 8(월)~11.23(화)
• 전형일: 2004.11.24(수), 27(토), 29(월) 중 선택
• 홈페이지: http://graduate.dongguk.edu/ci
언론정보대학원 교학부 02)2260-3722~3

산업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건설·환경공학과, 식품·화학공학과, 컴퓨터·전자·정보통신공학과, 디자인·경영공학과
• 원서접수: 2004.11.17(수)~11.30(화)
• 전형일: 2004.12. 4(토)
• 홈페이지: http://gsite.dongguk.ac.kr
산업대학원 교학부 02)2260-3603~4

문화예술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문예창작학과, 공연영상예술학과, 문화예술인문학과, 예술경영학과, 예술치료학과
• 원서접수: 2004.11. 8(월)~11.16(화)
• 전형일: 2004.11.20(토)
• 홈페이지: http://gsite.dongguk.edu/ca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 02)2260-3606~7

국제정보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정보보호학과, IT-Business학과, 영어통·번역학과
• 원서접수: 2004.11.15(월)~11.23(화)
• 전형일: 2004.11.26(금)
• 홈페이지: http://ia.dongguk.ac.kr/~iai
국제정보대학원 교학부 02)2260-3731~3

불교문화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불교학과, 불교예술학과, 인간학과
• 원서접수: 2004.11. 8(월)~11.18(목)
• 전형일: 2004.11.20(토)
• 홈페이지: http://gsbc.dongguk.ac.kr
불교문화대학원 교학부 054)770-2393~5

사회과학대학원 [야간]
• 모집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국제관계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 원서접수: 2004.11.29(월)~12.10(금)
• 전형일: 2004.12.11(토)
• 홈페이지: http://wwwk.dongguk.ac.kr
사회과학대학원 교학부 054)770-2093~4

# 2004년 도 총학생회 평가토론회

# 친밀한 의사소통 가능한 총학생회로 거듭나야

우리학교 내년도 총학생회장 선거가 후보자 미출마로 무산됐다. 또한 현재 총학생회는 2학기 때부터 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 전환된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총학생회를 평가해 보고 내년도 총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편집자



구자룡 전 총학생회장

**사회자=학생회를 평가하기에 앞서 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것 같다. 각자가 생각하는 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박혜영=**학생회의 역할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민지=**비슷한 생각이다. 대학은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학생회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영수=**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학생들의 이익을 위해 학교에 요구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총학 사업 마무리 아쉬워

**사회자=전 총학생회장으로서 올해 총학총회 사업에 대해 평가를 내리다면.**

**구자룡=**올해 총학생회가 주도한 분관선거 투쟁은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 등록금 투쟁 방법으로 분관

접거를 택할 때, 더 많은 학생대표자들, 학생과 함께 고민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노력했음에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특히 분관선거 중에 여러 차례 물리적 마찰이 일어난 점은 유감이다.

하지만 방법과 과정상의 문제가 전체적인 본질을 흐리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학교측은 학자투쟁의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방법상의 과격함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과 과정은 무엇인지에 관해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정대로라면 총학생회 공약은 지금도 이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1학기 때 제적이 돼 총학생회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면서 총학생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학생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상반기 감사를 받으면서 공약평가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을 많이 지



유민지(사회3) 사회학과 학생회장

키지 못했다. 총대의원회 체제를 해소하고 전학대회체제 건설을 추진했으나 실패했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졸업준비위원회와 취업지원팀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이도 잘 시행되지 않았다.

## '운동권' 이미지는 탈피해야

**사회자=이른바 '운동권' 성향의 총학생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근대 총학생회가 학내활동보다 학생운동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김영수=**학생회는 학내의 정치적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적이다. 그러나 총학생회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파병 반대와 같은 정치적 이슈들은 총학생회와 생각이 다른 학생들도 많다. 대학생으로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동국대 전체 학생을 대표로 하는 총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의 정치적 입장이 동국대 학생 전체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운동권 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운동권 학생회가 복지적인 사업보다는 대외적인 정치적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집회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치적 활동이 활발할수록 복지사업에 역량을 쏟을 여유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구자룡=**학생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이



김영수(국제2) 국제학과 학생회장

익과 권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이익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 그대로 학생들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과 둘째는 사회속에서의 대학, 그리고 대학생의 역할을 고려한 학생들의 이익이다. 정치적이기는 하지만 대중의 호응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와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사회상황 속에서 단순히 학생회가 학생들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학생회도, 그 동안의 운동권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몇몇 단과대들도 한총련 계열의 총학생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도 함께 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는 버렸으면 좋겠다.

**이재원=**대학생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총학생회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한 활동들을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나가는 작업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 필요

**사회자=앞으로 총학생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재원=**솔직히 말하자면, 학생회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전부터 관심을 갖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총학생회에서도 예산 내역을 밝히는 활동들을 더욱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총학생회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학생들이 '또 투쟁 하나보네'라는 식의



박혜영(컴공3) 정산대 학생회장 당선자

생각보다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려면 서로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학과 학생회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김영수=**총학생회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그러한 총학생회의 활동이 와닿지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때문에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학과 학생회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학과학생회가 세워지지 않은 학과가 많다. 때문에 학생회 조직을 간소화시키고 조직체계를 벗어난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학생회의 일을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전자우편을 통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의 소식을 알린다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의 활성화 등이다.

**유민지=**사회학과와 같은 경우에는, 사과대가 비대위원장이 없는 비대위체제로 운영됐기 때문에, 새터를 준비 때까지는 과 학생회들이 모이는 단과대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곧 활동이 중단됐다.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생회, 총학생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과단위의 학생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과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세워진 학과보다는 일정한 규칙 없이 세워진 학과학생회들이 많아 학과학생회장이 책임감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학과학생들로부터 인정받기도 힘들었다. 따라서 학과학생회도 회의구조를 제대로 갖추고 선거를 통해 학과학생회장을 선출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 현 총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재원(신방2) 양

총학생회와 학생이 괴리돼 있다는 점이다. 총학생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과 학생회부터 활발한 활동을 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학생들 개개인과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학과 학생회에서는 가능하다. 일대일의 만남을 통해 학과 학생회부터 일반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박혜영=**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인데, 대부분의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학생회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른다. 우선 학생회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총학생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구자룡=**학생회비 예산은 학생들로부터 학생회비 8000원을 받아 각 학생자치기구의 원천수에 비례하는 예산을 배분한다. 이러한 예산은 단과대 학생회까지 분배가 되고, 학과 학생회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과 학생회비를 걷고 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점차 학생회비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공개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부지런하지 못했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한다.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은 일단 학생들이 선택한 학생회이니 만큼 믿고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총학생회가 편향적인 측면, 곧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학생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만 공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총학생회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은 총학생회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

사회=황주상 기자  
정리=김지희 기자



지난 12일 열린 2004년도 총학생회 평가토론회 모습.

## 생협 도서 특별 할인 판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점에서는 KG북 플러스 제휴도서와 서점 내 소장도서를 아래와 같이 특별 할인 판매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기간 : 2004. 11. 15(월)~11. 26(금) 【단, 토, 일요일은 제외】

2. 장소 : 다량관 구내서점, 상록원 입구

3. 할인도서

KG북 플러스 도서 【대원사, 종로서적 발행도서 외 다수】 교양 : 숫자의 비밀 외 다수 역사 : 전쟁의 역사 외 다수 철학 : 인간과 문화 외 다수 정치·사회 : 인간을 넘어서 다수	구내서점 소장 도서 【고려원 도서 외 다수】 소설 : 삼국지 1 ~ 6부 (양장본) 외 다수 비소설 : 이야기 명심보감 외 다수
---	--

4. 한정수량만 판매하므로 조기품절 될 수 있음

- 종로서적 발행도서 최저가판매 및 대학생 권장도서 50여종
- 고매 고객에게 사은품 증정(월간 페이퍼, 쿨펜, 섀터, 문구세트)
- 2학기 마지막 특별 할인행사입니다.

\* 문의 : 다량관 교내서점 ☎02-2260-8956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생협 문화유적답사 참가가 모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고구려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2004년 생협 생활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각 구성원간 유대 강화를 위한 금번 행사에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1. 답사 기간 : 12. 13(화) ~ 12. 17(금), 4박 5일

2. 답사 장소 : 고구려 유적지(중국 단둥, 심양)

3. 답사 인원 : 12명(교·직원, 대학원, 학부생 포함)

4. 답사 참가비 : 무료(생협 생활문화사업비로 전액 지원)

5. 답사 신청자격

가.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1구와 이상 출자한 조합원.

나. 생협 발전에 기여한 조합원

다.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조합원

6. 신청서 접수기간 : 11. 15(월) ~ 11. 18(목), 17:00까지

7.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생협 사무국(해와관 1층)

8. 답사 참가자 통보 : 11. 25(목), 17:00까지 / 유선 및 생협 홈페이지

(http://dgucoop.dongguk.ac.kr/)

9. 기타 세부사항은 생협 사무국(☎교내:2260 - 8948, 담당자 : 이준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dgucoop.dongguk.ac.kr/intro/sogae/sogae\_content.htm 문서자료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은

- 졸업생 추수지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근에 분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 최신 실무지식을 재교육하여 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문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도록 하며
- 마케팅, 협상, 전략기획, 문제해결, HRD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선임하여 강의 하도록 하며 프로그램 전체 이수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희차 별 특강 주제는

회차	특강 주제	강의 개요	강사	주요 경력	일시/ 장소	장소
1차	21C 마케팅 뉴 패러다임	한국형 마케팅 실무적 마케터를 위한 실전 총론	조서환 박사	KTF(주) 대경마케팅본부장	10월26(화) 10월27일(수)	예술극장
2차	Biz Negotiation Skill Up	협상의이해와 접근 성공적 협상을 위한 기술 협상진행의 과정	김병국 박사	k&P홀딩스대표이사/ 국제변호사 미국공인회계사 주요저서:비즈니스 협상론 등	11월9일(화) 11월10일(수)	예술극장
3차	전략기획 실무과정	전략의 기본 프레임 워크 전략의 수립 및 실행	이인오 전무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 주요저서:선진경영의결	11월25일(목) 11월26일(금)	덕암 세미나실
4차	문제해결 역량 강화	논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기법, 활용 방안 제시	윤봉탁 본부장	현대인재개발원 본부장 신지식인 강사양성 교수	12월2일(목) 12월3일(금)	덕암 세미나실
5차	HRD 기본과정	자신의 가치를 조직의 가치로 퍼스날 브랜드를 위한 전략	공선표 박사	삼성포인팅지원 연구소 대표이사 삼성경제연구소 HRM연구실장역임	12월9일(목) 12월10일(금)	덕암 세미나실

- 모든 강의는 오후 7시에 시작합니다.

- 저녁식사 대응 간식을 제공합니다.

참가 방법은

동국대학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의 공지사항에서 "동국인 Career Power Up 프로그램" 클릭하여 참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강 시작 3일전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 교재 부수 결정 및 강의장소 섭외를 위해-)

## 대외협력처

위풍당당 동국인

'봄은아나운서아카데미' 원장 성연미(국교85졸)동문

동문칼럼



“명확한 목표 세워 끝없이 도전하는 자세만이 꿈을 향한 첫걸음”

졸) 동문이 바로 그다. 아나운서, 한 아카데미의 CEO, 대학 강사. 화려하게 보이는 그의 현재 모습도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당시 뚜렷한 목표와 꿈이 없었던 성 동문은 단순히 부모님의 권유로 교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없었던 만큼, 대학생활에 흥미를 잃어가고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 당시 우연히 한 친구의 권유로 학내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의 경험들이 지금의 꿈을 발견하는데 큰 기회가 됐다.

고 충고한다.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싶어하는지, 왜 해야만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서면 그때부터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가. 심리학에서는 어떠한 일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간절히 희망하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라 설명한다. '나는 꼭 할 수 있다'는 자기 예언이 결국 꿈을 실현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그때부터 오로지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던 그는 졸업 후 본 방송국 공채 시험에서 줄줄이 떨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그중 우연히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연 할 기회가 생겼다. 그곳에서 새삼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은 소망이 간절하면서도 방법을 잘 몰라 포기하는 후배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부터 후배들에게 정보를 주고, 자신의 경험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모교 후배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그는 다음 학기부터 우리학교에서 아나운서와 관련한 실습 과목을 강연할 계획이다.

자신의 현재 삶과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러한 피그말리온 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는 사람. 전 KBS 12기 아나운서이자 현재 봄은아나운서아카데미 원장으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성연미(국교85

졸) 동문이 바로 그다. 아나운서, 한 아카데미의 CEO, 대학 강사. 화려하게 보이는 그의 현재 모습도 순탄하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당시 뚜렷한 목표와 꿈이 없었던 성 동문은 단순히 부모님의 권유로 교사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의 아나운서아카데미이다. 지난 10월에 아나운서가 된 MBC 김정근(경영졸), KBS 이정민(광고졸) 동문이 이곳 출신이기도 하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도록 노력하세요. 찾았다면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보다는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끈기를 가진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지기 마련이에요”

자신이 진짜 원하는가 하고 싶은 일 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한 일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요즘, 그의 끝없는 도전을 통해 얻은 '꿈'은 그래서 더욱 값지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장 상 인 행정학과 72년 졸업 전략개발 기획홍보실장

외국어 실력이 취업의 지름길

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애사심(愛社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외국어 실력'이라고 본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네트워크가 날로 발전하지 않는가? 지구촌 곳곳의 뉴스가 리얼타임으로 우리들의 안방으로 속속 들어온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직장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바로 자신의 경쟁력인 시대에 도래한 것이다.

앨빈 토플러는 인류문명을 세 가지 변화의 시대로 정리했다. 제1의 물결은 농경시대이고, 제2의 물결은 산업화 시대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라고 분류한 것이다. 이 세 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 시대에 걸맞는 '직장'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그 직장의 틀 속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고 있다. 큰 회사, 좋은 직장에 들어가 기관 하면 많은 봉급, 안정된 생활, 노후가 보장된다는 공식이 깨진 것이다.

요즘을 유머 사이트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

20대가 취직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30대가 직장에 다니면 '동네잔치', 40~50대가 직장에 다니면 '국가적 행사'라는 것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취직이 어렵고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유머러스하게 비유한 것이다.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채용기준을 외국어에 두고 있고, 기존 직장인들도 승진조건에 외국어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확장시절, 어쩌면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다. 시간 나는 대로 외국어 실력을 연마하라. 유난히 노란 남산의 은행잎이 아름답다고 가을의 정취에만 취해 있지 말고, 최근에 '홍보, 머리로 뛰어난' 직장생활 중에 외국어 실력 하나로 그야말로 주경야독하면서 번영한 책이다.

노력이 통해서인지 이 책이 전문서적이지만 최근 교보문고에서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로 꼽히기도 해 뿌듯함을 느낀다. 이러한 성과와 수많은 비즈니스의 성공 역시 확장시절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했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취업과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일까? 성

오늘의 길

참사람 봉사단 소속 봉사단원 박진주(일문4)양

“작은 봉사가 남에게는 큰 도움이라는 것에 놀랐어요”

영어 공부, 독서, 여행 .....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을 앞두고 학기 중 바쁜 일정으로 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미리 세워두곤 한다. 대부분이 자신의 재충전을 위한 활동들이다. 하지만 지난 여름방학을 다른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으로 보낸 사람이 있다. 우리학교 참사람 봉사단 소속 봉사단원으로서, 봉사활동의 일환인 직장체험에 참여해 여름 방학 동안 복지원 교사로 일한 박진주(일문4) 양이 바로 그이다.

박 양은 3학년이 되던 해, 졸업하기 전에 까지 사회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집 근처 복지원에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을 돕는 일에 흥미를 느껴 시작한 일이 올해로 벌써 2년째, 봉사 시간으로는 500시간을 넘겼다. 2년간 같은 복지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초기에는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하던 아이들도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곤 할 때 무엇보다 힘이 되곤 한다.

실제로 그는 단기간 동안 하는 봉사활동 보다는 한 곳에서 꾸준하게 도와주며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난해부터 같은 복지원에서 봉사하고 있다. 저녁 시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부모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로, 무엇보다 이러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며 느낀 점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아이들의 경우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인지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다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그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늘어선지 잔소리도 늘고 매일 오는 것이 지겨워 도망친 아이를 찾으러 온 동네를 뛰어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박 양은 봉사활동과 더불어 학점 관리와 취업 시험 대비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현재는 졸업 준비로 인해 당분간 복지원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계속 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박진주 양.

“요즘은 쉽게 좌절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봉사를 하면서 새삼 내가 살아있다는 점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곳곳에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그녀의 말이 내 자신만을 위해 살기 급급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박정국 교수 간 보조장치 연구 성공



본교 생명화학공학과 박정국 교수를 주축으로 하는 국내 연구진이 동물 장기를 이용한 간 보조 장치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간세포 구상체 반응기'는 돼지의 간세포를 이용해 급성 간부전증 환자들의 혈액을 정화시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종의 간 기능의 보조 장치로, 간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 대해 박 교수는 보조기가 직접 환자들에게 이용되기에는 임상 실험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1만 2천여 명이 이르는 말기 간부전증 환자와 간이식 대기자들에게 획기적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캠 손연철 교수 동양최고결작 본존불상 재현



현재의 예술적 기술로는 설명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던 석굴암 본존불상이 우리학교 교수의 손에 의해 다시 재현됐다.

본교 경주캠 미술학과 손연철 교수가 3년간의 연구 끝에 석굴암 본존불이 비대칭 조형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실제의 3분의 1 크기의 모형 금동제 조각으로 축소, 제작해 낸 것이다.

이번 성과는 본존불상이 그동안 동양 최고의 결작으로 손꼽히면서도 그동안 많은 작가가 재현을 시도하다 실패해왔다.

또한 이와 관련한 논문도 300편 이상이 나왔지만 정확한 해답이 밝혀지지 않아 더욱 의미있게 평가되고 있다.

Advertisement for Nonghyup insurance product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hite envelope with '2004년 최고의 보험상품' (Best Insurance Product of 2004) written on it. Below the envelope, there are five award logos and their corresponding titles: 1. 2004년 한국경제신문 선정 한경소비자대상 (Selected by Korea Economic Daily as Best Consumer Award). 2. 2004년 헤럴드경제 선정 히트상품 (Selected by Herald Economy as Hit Product). 3. 2004년 파이낸셜뉴스 선정 Fn Top Pride 상품 (Selected by Financial News as Fn Top Pride Product). 4. 2004년 서울신문 선정 소비자만족대상 (Selected by Seoul Daily as Consumer Satisfaction Award). 5. 2004년 일간스포츠 선정 빅히트상품 (Selected by Ilgan Sports as Big Hit Product). 6. 2004년 스포츠조선 선정 고객만족도 1위 (Selected by Sports Chosun as Customer Satisfaction 1st Place). 7. 2004년 스포츠투데이 선정 소비자인기대상 (Selected by Sports Today as Consumer Popularity Award). The advertisement also lists two main products: '농협중신공제' (Nonghyup Mutual Insurance) and '자유선택공제' (Free Choice Mutual Insurance). It highlights features like low premiums, high benefits, and flexible payment options. The Nonghyup logo and website (www.nonghyup.com) are also present.

보리소

옛 스님의 공부법

‘치문경훈’이란 책이 있다. 막 출가한 스님들이 공부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옛 스님들의 말씀을 모은 책이다. 이 책 속에 중국 송나라의 법운 스님이 지은 ‘열 가지 공부하는 문’이란 글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치열하고도 냉혹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오늘의 젊은 이들에게 세속을 떠난 스님, 그것도 옛 스님들의 공부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가도 어쩌면 대학에서의 지금 시간들이 평생 진지하게 책을 펼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첫째, 도덕규범을 지키고 참선을 익히며 지혜를 키워라. 둘째, ‘나’를 꺾어라. 그래야 배울 수 있다. 셋째, 스승을 가려서 배워라. 그래야 본받을 것이 있다. 지혜롭고 행실이 마치 창틀으로 새어나가는 불빛처럼 곧은 사람,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항상 죄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듯이 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다. 넷째, 착한 말들은 모두 읽고 기억하라. 하루에 한 구절은 외워야 한다. 다섯째, 항상 메모하라. 그래야 세상과 후세에 전할 수 있다. 여섯째,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이니 시를 배워라. 그래야 말할 줄 알게 된다. 일곱째, 옛 사람의 말과 역사를 항상 공부하라.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여덟째, 경험을 쌓고 항상 독서하라. 그러면 아는 것이 많아진다. 아홉째, 벼를 구하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자는 벗이기 때문이다. 열째, 네 마음을 알아라. 그러지 않으면 진리를 얻지 못한다.

세속사를 멀리 떠날 것을 강조하던 선승들에게도 더 깊은 세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법이 필요하였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넓은 세상을 만나러 나서야 할 그대라면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 미령  
역경원 연구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주도한 파업 찬반투표로 공무원단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무원의 노조결성에 대한 일반여론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사회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사회적 강자로서 안정된 기득권을 누려온 그들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하거나 의도된 정치활동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싸늘한 여론’속 공무원 파업

공무원의 노조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평가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극단적인 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싸늘한 여론이 이를 말해주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공무원 내부에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고용보장과 노후대책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공무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때 파업까지 들고 나오다니 한마디로 국민의 심정을 착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철밥통을 내던지고 우리를 던져 당당해지고 싶다”는 스스로의 선언조차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올 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무원노조 결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원노조



논단  
심익섭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적 합의 바탕이 된

노조결성 이뤄져야

법(안)도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배제한 데 따른 전공노의 반발이다.

‘차이’ 고려한 ‘권리’ 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일반적 인 민간노조와는 다르고,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 도출해 내는 것이다. 특히 핵심 쟁점인 단체행동권 허용문제는 심도 있는 이론적 논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와 공무원 양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서구국가들에서는 공무원들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나마 인정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도 행정명령으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노조의 천국이라는 독일은 파업권은 물론 단체협약 체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의 전통적 노사관계 문화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원칙적으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도, 노동기본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읽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정서 반영해야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지난 2002년 공무원 노조 결성이후 법외단체로 이어져온 조직을 명실 공히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15년 전 노태우정부가 전교조에 가했던 탄압을 생각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합법화 단계까지 접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주장보다는 전략적으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직업공무원제도에도 배치되는 단체행동권은 여론실적을 통한 장기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대를 앞서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물며 현대 산업사회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조설립 문제를 놓고 쟁점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특히 단순히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노조활동을 제한 한다는 편협한 시각 또한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진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나 공무원 양당사자가 한국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여 내용적으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를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기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제보 : dgupress@dongguk.edu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해설기사 해결책 제시 미흡

지난호 동대신문에 공감이 가는 기사가 많았다. 열린 글터에 도서관 컴퓨터 사용 시 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자는 의견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동국의 사람들’은 학내 사람들의 생활을 실어 학생들이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점을 알린 것이 좋았다. 특히, 청소년 이순에 씨의 인터뷰는 같은 호에 실린 학내 용역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사에 힘을 실어 주었다.

가장 눈에 띈 기사는 본교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 기사였다. 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였다. 하지만 일부대학의 노조결성 사례와 정부, 본교, 학생들의 관심만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본교의 입장과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조사해서 노조 결성의 가능성 여부를 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론·칼럼 면에 실린 대학생들의 사이버월드를 통한 가상네트워킹 문화를 비판한 칼럼은 인터넷의 보급으로 생긴 소통도구인 사이버월드와 대한 과도한 우려이다. 핵가족뿐만 아니라 독신가족이 늘어나는 추세인 현재, 오히려 사이버월드와 같은 소통도구의 역할이 절실해 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 밖에도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의견 및 교내의 문제점 등을 실은 기사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막연했던 학생들의 생각을 수렴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만든 점도 좋았다. 앞으로도 활발히 학생들의 참여의 장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최태경(예술대 문창3)

소나기

부시 재선, 앞으로의 한미관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전쟁 일어나는 것 아니야. △북핵 문제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캐리가 당선됐어도 그다지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우리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디. △6자회담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부시와, 김정일 ... 앞으로의 상황이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 관계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든 캐리든 우리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무엇보다 최선은 북·미간의 전쟁을 막는 것이다. △한·미동맹 체제의 제고가 필요하다. 무조건 적대적인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우방국으로서의 체제를 공고히 하면 우리나라 안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파기하고 민족공조 실현합시다. 2차 남·북 정상회담도 빠르게 진행

수강신청기간 변경에 관해

얼마전 반가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학교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수강신청기간을 12월 초에서 2월 중순으로 변경한다는 것과 신청과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이 기말고사와 겹쳐있어 기말고사 공부하고 또 다음 학기 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느라 이중으로 신경이 쓰였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말고사 준비에만 충실할 수 있어서 고민거리 하나가 사라진 기분이다. 또한 수강신청 과목을 결정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항상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결정된 과목에 한해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이제는 내 의견을 조금이나마 피력할 수도 있고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데 한 걸음 내딛은 것만 같아 기쁘다.

다만 이러한 시행이 단지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취지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잘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사행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박선희(사과대 행정2)

약속 지키는 공사 기대한다

약속이란 ‘어떤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는 사전적의미를 갖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약속의 사회적 성격은 매우 중요하다.

작년 여름 동대입구역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시작은 다른 누구보다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무시하지 못할 변화를 가져왔다. 신호등만 더 건너면 되는 것이지만 이 작은 시간이 가져다준 불편을 느껴본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에스컬레이터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공당시 ‘약속’이다. 처음 완공약속이 2004년 9월이었는데 정작 이 때가 되자 갑자기 완공예정일이 변경됐다. 에스컬레이터 완공은 필자뿐만이 아닌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해명은 써있지 않았다.

지난 토요일 변경된 날이 한참 지나

서야 에스컬레이터가 운행하기 시작했다. 시공기한은 시공업체와 서울시와의 계약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간의 암묵적인 약속이다. 앞으로는 보다 책임감 있는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김진철(사과대 경제2)

이기적인 술문화 변화해야

지난번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최대 24시간 격리할 수 있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됐다. 결과는 찬성이 85%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술주정 부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말이다. 물론 반대견에 ‘인권침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심한 주취자로 인해 피해를 사람들의 피해를 더 고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법안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보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올바른 술문화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규혁(이과대 반도체2)

2005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2005학년도 1학기 우수장학금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1. 장학명(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신입생장학, 모호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4-2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졸업학점이 120인 경우 15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취득학점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5-1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3. 신청기간 :** 2004. 11. 15(월) ~ 30(화)
-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5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라. 학업지도교수평가(학과특성 및 기여도)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 7. 제출서류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부에 제출함.  
2) 동국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점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은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 세액별(비)과세증명서 :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라. 기타 가정형편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마.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점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학 생 처

2005학년도 1학기 복학·재입학 안내 (1차)

- 1. 복학**  
가. 접수일자 : 2004. 11. 29(월) - 12. 1(수)  
나.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전역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2005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소속대학 교학과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 유의사항 :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이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 2. 재입학**  
가. 접수일자 : 2004. 11. 29(월) - 12. 1(수)  
나. 등록일자 : 2004. 12. 6(월) - 12. 8(수) 교내 제일은행  
(※ 미등록시 재입학이 취소됨.)  
다.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사징계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5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사징계제적자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가능합니다.  
라.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1부.  
마. 유의사항 : 재입학은 학과 및 전공에 잔여석이 없을 경우 급학기 재입학 불가능합니다.
- 3. 접수장소 : 소속단과대학 교학과**

교 무 처

2005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 (1차)

- 1.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2004. 12. 6(월) - 12. 8(수)  
나.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다. 휴학 대상자 :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  
라. 신청서류  
(1) 일반휴학신청서 :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2) 휴학연장자 : 휴학연장서 휴학연장원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마. 유의사항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중산하여 6학 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제적됩니다.
- 2. 군입영 휴학**  
가. 접수일자 : 상시 (군입영 통지서 수령시부터 임영직전 까지)  
나. 접수장소 : 소속대학 교학과  
다. 제출서류 : 군입영통지서 사본, 군입영휴학원 2기부.  
라. 유의사항  
(1) 일반휴학기간에 군입영휴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군입영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군입영휴학자는 임영일부러 휴학합니다.  
(3) 군입영 휴학자라도 학기 2/3이상부터는 해당학기가 인정됩니다.  
(4) 군입영 휴학전 반드시 개별 시험을 치르고 해당학기 성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성적 미 취득시 성적경고입니다.  
(6) 군입영휴학으로 성적정정기간에 성적정정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달하나 천강에

색에 담긴 삶의 의미



김홍우 예술대 연극학과 교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색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통 색까지 생겨날 수 있었다. 현대로 오면서 색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 색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하는 한편, 살찌게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 색은 생물이나 무생물 모두 갖추고 있어 색으로 서로를 판단한다. 만약 사람이나 생물이 색감이 없었다면 거의 모험에 의존하여 식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은 색채가 있어서 상호 구별을 빨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람이 색채 등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인간만의 위대함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색채는 더욱 세분화되어 120여종이 되었다. 앞으로 도 색은 계속 숫자와 영역을 넓혀 가리라 본다.

래 접하면 분명 증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교육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하다 남편과 헤어진 여자는 패션상회에 들리면 노랑색 옷을 먼저 짚는다. 홀로 사는 여자도 노랑색을 즐겨 입는다. 많은 사람에게 "난 홀로 입니다"라고 광고하고 싶은 것이다. 봄이 되어 나무가 새순이 돋고 하면 방을 새로 단장한다. 계절이 바뀌었다고 시원한 녹색의 방을 만들어 아들이나 딸에게 그 방에서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은 자꾸 바깥으로만 나돌고 자기 방에 들어가길 싫어한다. 즉, 녹색은 분열 증세를 촉발하는 경향이 있다.

나 얼굴에도 색채가 있다는 사실이다. 말의 색채는 음식이라하고 얼굴의 색은 안색이라 한다. 다 같은 민족이라도 말과 얼굴에 색채가 있어 구별이 분명해 진다. 그때 그때의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적합한 말과 안색이 나타난다. 가장 기뻐야 할 때 기분이 나빠 있으면 아무리 기뻐한들 그 기분은 기분일 수 없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얼굴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둡고 짐직한 느낌을 준다. "아이 좋아"했는데 이것이 우울한 심정에서 나왔다면 그 말과 안색은 그 의미를 다하지 못하고 말 것이다. "아이 좋아" 했는데 이것은 음식과 안색에 따라 선물을 받고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운 취업 시험에 합격하여 좋을 수도 있고, 원수를 갚아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직업에 따라, 타고난 개성에 따라 서로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식이란 회·노·애·락·수·우·사·공을 모두 죄우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중시해야 하는 것이다.

메아리

청년실업과 뉴딜

▲알마찬 대학원졸업생이 환경미화원을 지원했다가 떨어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집안사정이 더욱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심사기준의 특성상 '부양가족이 없다'는 사유로 탈락한 것. 우리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대학원졸업생이라는 '고학력자'로서 환경미화원에 지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야기거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실이다.

적인 인력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고급 인력이 낭비되고 있음은 물론 가격과 청년층의 소비가 취업준비자에게 물려 전반적인 상품·서비스재화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것이다. 더구나 왕성하게 일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청년실업자의 심정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다.

▲이런 청년실업자의 고통을 이해해 서일개, 정부가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경제건설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성장기반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과

도기적 공공투자로 내수부족을 메우는 것"이라며 시행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더욱이 건설경기부양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고학력화된 청년실업자에게는 '남 얘기'일 뿐이다. 수십만 청년실업자들의 비육지탄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최성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자 살

이화은

은행나무 밑에서 지구가 노란 알약 한 움큼 한 입에 탁 털어 넣었다

미친 바람 머리 푸는 가을 마지막 날

시집 '절정을 복사하다' 중에서

도처에는 낙엽을 뿔뿔 흘리는 나무들이 일색이다. 교정이든, 남산 순환로를 오르든, 길목이든 못 나무들이 소리 없이 진땀 흘리 듯 나뭇잎들을 쓸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하철 동대입구 역에서 엠버서더 호텔까지 줄지어 선 은행나무들이 유난히 힘들어하는 것만 같다. 그들 발 밑에는 떨어진 노란 잎들 사이 무슨 알약처럼 은행 알들이 많이 묻혀있다. 화자는 그 은행알들을 지구가 먹는 취사량이 넘는 독약처럼 상상한다. 공해 탓에 인류의 전멸을 걱정하든, 핵으로 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든 슬한 비판론이 판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시인은 또 하나의 걱정을 우리에게 덧 보태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벌써 늦가을이 지나 초겨울이다.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사설

'우리 학생회'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에 분사 주최 학생회평가토론회가 열려 올해 학생회를 평가하고 다음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이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학생회의 위기'가 정점에 달한 시점이라 더욱 의미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토론회에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지 못했다. 특히 본교 홈페이지의 '나의 주장'에서 학생회에 대한 비판이 뜨거운 것에 비해 오프라인 토론회에는 참석자가 극소수에 그쳐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 아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날 제시된 몇가지 의견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총학생회의 정치성향에 대한 토론에서 "비정치적이지는 않되, 운동권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전 총학생회장의 발언은 현 학생들을 계도하려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성향에 맞추려는 의지로 보여 긍정적이다. 또한 학생회비를 이중부담하지 않기 위해 일괄적으로 고지하지는 의견은 학생회비운용에 대한 불신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현재 개인-학과-단과대-총학생회로 이어지는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구조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통신수단을 활용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높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따라서 이날 논의됐던 내용이 헛되지 않도록 차기 학생회는 보다 친숙한 학생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나아가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 문제 제기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정확히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분명히 파악해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생들도 스스로 학생회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자. '우리 학생회'를 정립할 수 있는 지름길은 골수적인 참여의식임을 잊지 말자.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Table with 2 columns: Role (발행인, 편집인, 부주장, 편집국장, 편집장) and Name (홍기삼, 고재석, 구분철, 류변성, 최성민). Includes contact info for Dongguk University Press.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2005학년도 전과 (전공변경)

- 1. 지원자격: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2.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원천적 계열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3. 제한사항: 가. 경영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4.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결정: 2005. 1. 20(목) 이전
5. 시험 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처: 전입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아간은 아간교과 교학과) (2) 접수기간 ① 재학생인 3학년 진급예정자: 2004. 11. 15(월)~19(금) ② 2005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1차): 2004. 11. 29(월)~12. 1(수)
6.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일반전형: 1. 2학년 누계성적평점(100%) + 면접 나. 예능계열: 1. 2학년 누계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다. 사범계열(체육교육제외): 1. 2학년 누계성적평점(90%) + 교직 인·적성검사(5%) + 면접(5%)
7.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

2005학년도 전공결정 시행

- 1. 신청대상: 가. 2004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2. 일정: 가. 전공 신청기간 ① 1학년 재학생: 2004. 11. 22(월)~11. 26(금) ②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2004. 11. 29(월)~12. 1(수) (1차 복학생) ③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2005. 2. 14(월)~2. 16(수) (2차 복학생)
3. 대학별 전공결정 기회 및 시기: 2004학년부터 매년 2학기말 1회
4.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1학년 재학생: 인터넷(학교홈페이지-학사행정-재학생서비스-전공신청화면)으로 신청하며 자신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미만인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음.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자신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미만인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이 될 수 있음.
5. 배정기준: 1학년 1·2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통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
6. 복학생의 전공신청 기본원칙: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
7.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은자가 우선한다. 다. 제1, 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동 순위로 처리한다.

교무처

2004-겨울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 신청)

- 1. 신청자격: 재학생
2. 신청기간: 2004. 12. 1(수) 10:00~12.3(금) 17:00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
3. 동국참사람봉사단(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시: 2004. 12. 11(토)08:20~17:00 나. 장소: ▶ 특강 - 본교 중앙담 08:20까지\*시간 엄수 ▶ 현장체험학습 - 한사랑 마을·함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현장체험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4. 준비물: 종식 및 간편한 복장 착용
5. 봉사활동 기간: 2004. 12. 15(수)~2005. 2. 26(토)
6. 봉사활동 빈도: 기간 중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33시간 이상 이수 (\*봉사활동 안내 자료: 11월 29일부터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 동국참사람봉사단에 비치)
7. 봉사활동 대상기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150여개 기관 600여개 프로그램
8. 사회봉사 학점 신청방법 및 성적처리: 가. 학점 신청 방법: 재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나. 평가 방법: Pass 또는 Fail 다. 성적 평가 (1) 학점 인정: 겨울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 이수구분: 자유선택,1학점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겨울학기 활동(2005년도 1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반영) (\* (11월, 2005년도 2월 졸업대상자는 사회봉사 학점신청 불가)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9.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10. 특전: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성적우수 장학선 선택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준주수
11. 최근 상담수의 기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2. 봉사단 홈페이지: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람봉사단)

동국참사람봉사단

언어연 구교 육원 한국어 과정 수강생 일일 동행취재

# “한국 학생들과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학교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언어연 구교육원 한국어과정반이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이 중국·대만·일본·몽골·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또 다른 ‘동국인’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고, 이들이 접하는 한국과 동국대학교는 어떤 곳일까.

## 다양한 국적, 공용어는 ‘한국어’

지난 11일 오후 12시 30분, 해화관 1층 복도는 여러 나라 말들이 왁자지껄 복도를 울렸다. 이날은 한국어과정 학생들이 수업 후 ‘한국 김치문화 체험 날들이’를 가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상록원 학생식당으로 점심 먹으러 가는 길, 기자의 인사에 능숙하지만 조금은 어색한 억양이 묻어나는 수강생들의 답변이다. 그래도 쉬운 의사소통은 가능해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학생 식당에서 연신 이야기하며 밥을 먹는 그들은 다른 학생들이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학교 식당 밥이 싸고 맛있어요”라는 열정음(22) 양. 한국어과정 3급 반인 그는 대

만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학과 3학년으로 지난 8월 우리학교 중어중문학과 교환 학생으로 왔다. 한국 밥값이 대만보다 비싸서 부담스러운데 학교 식당은 값이 싸서 부담이 적다고 좋아한다.

열 양은 함께 교환학생으로 온 임가혜(22) 양, 임 양의 친구와 함께 홍익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이들에겐 우리학교에 기숙사가 없는 것이 큰 불편이다. 한국 물가가 비싸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상록원 식당에 학생들과 기자가 둘러앉았다. 한국·대만·몽골·중국 학생들이 앉은 그 자리의 공용어는 단연 ‘한국어’이다.

“한국어는 글자 생김새가 재밌어요”라는 장국정(22) 군. 한창 한국어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그는 한국어가 어렵지만 한국 노래 가사를 알아들을 때 무척 기쁘다고 한다. 장 군의 집은 중국 길림이다. 근처에 조선족이 많아 어릴 때부터 한국이 친근했다. 그는 지금 사촌동생 장진강(21) 군과 함께 한국에서 유학중이다.

## “지하철 타기가 제일 싫어요”

식사를 마치고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지하철 동대입구역으로 향했다.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2004김치엑스포 중 ‘외국인 김치체험’ 행사에 가는 것이다. 김명순 강사는 “한국어과정 수업 총 180시간 중 20시간이 한국 문화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김장철을 맞아 외국 학생들이 한국 김치 문화를 접해보기 위해 마

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명·세 명씩 짝지어 가는 모습은 한국 대학생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유난히 눈에 띄는 서양인이 있다. 한국어과정 4급 반에 다니는 러시아 학생 라리사 양이다. 그는 러시아의 극동국립대학교 한국학대학 한국문화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 1년 6개월 정도 머문 ‘한국 마니아’다. “러시아보다 한국에서 더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라리사 양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때문에 한국의 어떤 점이 좋냐는 질문에도 “사람, 분위기, 한국말 등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한다.

양재역까지 가는 3호선 지하철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냄새가 나서 지하철 타는게 제일 싫어요.”라는 장국정 군은 얼굴을 찡푸린다. 그런 말을 하는 도중에도 한 아저씨가 장 군을 밀치고 급히 내려 가는 한국 사람으로서 얼굴이 화끈거리게 했다.

## 한국문화 접할 기회 적어

김치엑스포가 열리는 양재동 AT센터에 도착한 학생들은 모두들 신기한 듯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한국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 자신들끼리만 다니다보니, 주로 가는 곳은 명동·동대문 등 학교 근처로 한국 문화를 접해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

행사는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김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조리사 모자와 앞치마,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직접 무를 갈아 그릇에 담겨있는 각종 재료를 버무려 절인배추에 묻히는 과정이다.

“와~ 너무 재밌어요!” 열정음 양과 임가혜 양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임 양은 “김치를 무척 좋아하는데 만드는 것은 처음 해본다”며 “대만에 가서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남학생들도 제법 잘 만든다. 장진강 군은 “어머니가 조선족이라 중국에서도 김치를 많이 담궜어요”라며 숨쉴 뻔했다. 열

에서 만들던 제빵(22) 군은 배춧잎에 쪽파를 나란히 올리더니 “네티어를 만들었다”며 자랑한다. 한국어 강좌 교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학생들끼리 서로 “내가 더 잘 만들었다”며 뽐내는 모습이 정겹다.

또 한명의 중국문화대학교 교환학생인 심이군(22) 양은 이번 활동을 기사로 써 대만에 보낼 계획이다. 교환학생 학생기자로 활동하는 그는 2주마다 한국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기사로 써서 학교로 보낸다고 한다. 때문에 기자와 인터뷰 하는 모습도 사진 찍는다.

## “일해서 부모님 선물 사야죠”

행사는 금방 끝났다. 학생들은 짊어써 아쉬웠던 행사를 뒤로 하고 전시장을 둘러봤다. 한국 각 지방의 젓갈, 음식 등은 외국인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설명을 해주는 도우미가 없어 학생들은 눈으로만 구경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무척 피곤해 했다. 그래도 장국정 군은 도착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가야한다고 말한다. 그는 유학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모두 버는 것이 힘들지만 이번 학기 한국어 과정이 끝나고 중국의 집에 갈 생각에 설레어한다. 부모님께 멋진 선물을 사가지고 갈 것이라는 장 군. 그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학교 근처의 한 음식점인데 술 취한 손님들을 대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놓는다.

그때도 학생들은 무척 친절한 한국 사람들이 있어 한국은 참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열정음 양은 “한국학생들은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라며 수업시간이나 도서관에서 무척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한국에서 1년도 채 머물지 않은 이들에게 한국은 아직 생소하다. 특히 이들이 공부하는 터전인 동국대학교는 생활공간이면서도 아직 낯설다. “한국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다”며 아쉬워하는 학생들. 이들에게 올바른 한국문화를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우리학교 학생들과의 교류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 떠오르는 문화계 직업을 찾아서

### 아름다운 꽃으로 싱그러운 삶을 만든다

#### 플로리스트

누군가를 축하할 때나 함께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또는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꽃을 선물한다. 특히 잘 어울린 꽃다발을 받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그런데 점차 꽃의 이용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꽃다발뿐만 아니라 각종 인테리어, 행사장, 조형물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꽃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식기능사가 하나의 전문분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론 시험은 화훼 품질유지 및 관리론·화훼재료 및 형태학·화훼장식 디자인 및 제작론 등으로 나뉜다. 이 시험에서 통과한 사람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실기시험은 화훼장식디자인 실무로 꽃다발·꽃꽂이·화환·테이블 장식·공간장식 중 하나의 분야를 직접 선보이는 것이다.

플로리스트는 관심과 재능만 있다면 남녀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 특히 폭넓은 원예지식과 꽃을 이용한 다양한 장식방법을 개발하는 창의력, 건물 등에 꽃을 접목시켜 하나의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해내는 조형적·미적 감각 등을 갖추면 더욱 좋다. 정 씨는 “그동안 국가자격 시험이 없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 잡는 것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롭고 활동적인 분야로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집 안의 꽃 한 송이로 집 전체를 환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연을 상실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꽃과 같은 존재, 플로리스트에 도전해 보자.

국내 플로리스트는 그동안 외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도 국가자격증이 도입되면서 화훼기능사들의 전문화가 예상된다.

오는 12월 12일에 치러지는 제1회 화훼장식기능사 국가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이며 실기시험은 오는 2월 19일로 내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플로리스트 정광욱(35) 씨는 “국가자격증의 도입은 화훼기능에 대한 전문화된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화훼장



정광욱 씨 작품.



점심을 먹는 임가혜(왼쪽)·열정음 양.



왼쪽부터 소훈연·제맹·장국정 군.



러시아 학생 라리사 양.



김치를 담그는 장진강 군.



열심히 김치를 담그는 두 학생.



버스 안에서 피곤에 지친 모습.

## 문화단신

### 제8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제8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가 오는 16일부터 6일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열린다.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주최하고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액트, 민주노총이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는 ‘접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다 큰 세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모토 아래 노동자 민중의 삶과 투쟁을 담아낸 한국·영국·이탈리아·프랑스·벨기에 등 10개국 2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개막작은 베네주엘라의 사회변혁을 담은 ‘볼리바리안 혁명: 베네주엘라 민중의 삶과 투쟁’이다.

또한 영화제 마지막날인 21일은 ‘변혁운동에서 영상활동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영화제의 모든 관람은 무료이다.

문화부 dgupress@dongguk.edu